

책선물 운동 펼치는 별난 공무원

서울 은평구청장 김치운씨

3호선 전철이 통과하는 은평구내의 역 부근마다 나붙은 “책을 읽는 구민이 되자”는 플래카드, “자수하여 광명찾자” 식의 캐케묵은 문구에 식상한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데 일단 성공한다. 더군다나 이 플래카드를 내다 건 단체가 다름아닌 구청인 까닭에 그 신선함은 증폭된다.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문화활동을 권장하는 이 이례적인 표어 등장한 것은, 지난 89년 10월에 은평구청장직을 맡게 된 김치운씨(53)가 구민생활표어의 하나로 독서의 생활화를 결정하면서 비롯되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적 도시로의 탈바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이 떠오르더군요”라고 말하는 김구청장은 “가장 손쉬운 듯하면서도 실상 어려운 일”인 독서가 인간성 회복의 첩경이라는 소신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독서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구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요소가 결여돼 있다고 판단한 그는, 생각 끝에 책을 선물로 주고 받자는 책선물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추석절 선물은 책으로 합시다” “다정한 이웃에게 책을 보냅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추진하게 된 이 운동에서 김구청장은 두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그는 우선 구호로만 떠돌아다니는 과소비 추방운동보다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정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책선물을 권장해 그릇된 선물풍토를 바로 잡는

역할과 함께 각종 범죄와 사회악이 만연하는 요즘의 사회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정서함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확신이 섰던 그는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지시했다.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인의 발길이 잦은 지하철역과 네거리 곳곳에 대형 플래카드 27개를 설치하고 홍보용 스티카를 제작해 구청의 민원실과 20개소의 구내 동사무소, 그리고 구내에서 영업중인 서점에 붙이게끔 했다. 한편 책갈피 5천매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서적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각각 1백권씩의 추천도서 목록을 접수해 인쇄 배포하기도 했는데, 이 도서목록은 반상회보인 ‘은평소식’에 실려 집집마다에 전해졌다.

책을 선물하자는 운동과 함께 병행된 것이 불우 이웃들에게 책을 기증하자는 운동. 책을 선물할 형편이 안되거나 책을 사볼 여유가 없는 이웃들과 동참하는 독서운동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상된 책 보내주기의 호응도가 높아 흐뭇해 하는 김구청장은 “생활수준으로 따져 비교적 높지 않은 구민들이지만 이웃들에게는 다른 구민들보다 더 앞선다”며 은근히 자랑을 한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창구를 마련해 딱한 처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할 책을 기증받아 본 결과 시작한 지 한달도 채 못돼 1백여종 3천1백여권의 도서가 담긴 걸 보면 허튼 자랑은 아닌 듯 싶다. 자신의 작품집 3백권을 기증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적 도시로의 탈바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이 떠오르더군요” 김구청장은 “가장 손쉬운 듯하면서도 실상 어려운 일”인 독서가 인간성을 회복케 하는 바람직한 문화활동이라는 소신에서 이 운동이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김치운씨

어느 수필가나 교육용 도서를 몇 백부씩 가져오는 ‘큰 손님’도 그렇지만 사랑과 정이 담긴 두세권의 책을 소중하게 포장해 보내오는 구민들의 이웃사랑은,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고.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이 도서들은 고아수용시설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 경찰서의 유치소 등 책이 꼭 필요한 장소에 전달돼 그 뜻을 빛나게 된다.

“멀리 전주에서 축전을 보내 격려해주신 작가도 있었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기사를 보시고 전화와 편지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들도 계시어인지 힘든 것보다는 보람찬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당장 이 운동을 시작하고는 제게도 추석선물이 책으로 보내져 오더군요”

책선물 운동과 독서운동을 펼치면서 무엇보다

다 기쁜 것은 은평구민의 문화적 소양과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하는 김구청장은, 이 운동이 ‘반짝 거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게끔 하려고 연말연시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란다. 한편으로 어릴적의 바른 독서습관과 선물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비단 이 운동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구립합창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KBS교향악단을 초청해 구민음악의 밤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문화정책에 애정을 쏟는 김구청장이 올해 추석선물로 직원들에게 준 것은 다름아닌 도서구입용 티켓이었다.

—최태원 기자

종합출판시스템
Total Publishing System

이 예민한 感覺과 세련된 技術은 컴피아트 정신의 표현입니다

축적된 지식과 창의력이 만나는 곳
십여년의 오랜 경험과 전문가적 기질을 바탕으로 전자조판의 入·出力에서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감각의 차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조판 SYSTEM

- 임력기 15대
- 국·한·구문 혼용 출력기 1대, 구문 전용 출력기 1대
- 교과서, 참고서, 어학교재(러시아어 포함), 사진, 단행본

편집 DESIGN

- Text 디자인, 레이아웃, 화상 텍스트시스템
- 표지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